coupang newsroom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전북에서 첫걸음을 내딛다

2025. 9. 30.

쿠팡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상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 첫 무대는 'WOW Stage in 전북'. 이 행사에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창업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영상으로 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8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 지킴이로 앞장서온 쿠팡.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데요. 그 첫걸음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행사를 전라북도에서 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늘 쿠팡과 함께 청년 CEO 특강을 열게 되었는데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청년 창업 지원을 하나의 큰 축으로 제 미션으로 정했습니다.”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 행사는 전북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커넥터스컴퍼니 엄지용 대표이사

“이렇게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해야할까요?” - 엄지용 대표

전문가들의 강연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전북 청년들은 쿠팡의AI와 디지털 물류 혁신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쿠팡의 진짜 경쟁력 중에 하나는 물류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은 진짜 경쟁력은 (AI를 활용한) 예측 가능성이에요. 즉, 판매에 대한 예측을 예측하는 거.”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SMT 김영훈 대표

청년 창업가들은 이날 쿠팡과 함께하는 지역 스타트업의 희망찬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청년 창업자들까지 고민하면서 이 생태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김영훈 대표

Wow Stage in 전북에 참가한 창업준비 청년 이완진 님

“오늘 세미나 정말 유익했어요. 쿠팡이 이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을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 이완진 님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는 이같은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더 밝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